

광주시, 올해도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박차

창장동 주민자치회·서구 꿈꾸는 작은도서관 등 여성친화마을 8곳 선정 전담활동가 배치해 맞춤형·역량강화 교육 지원...성평등 공동체 조성

광주시가 올해도 여성친화마을 지원단체를 선정하는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지난 31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선정된 마을·단체는 ▲동구 창장동 주민자치회(창장동 여성상인의 이야기 발굴을 통해 시대별 다양한 여성상을 기록) ▲서구 꿈꾸는 작은도서관(방과후 마을돌봄교실 운영과 아바놀이지도 코칭) ▲남구 십시일반나

눔마을학교(지역 자원을 연계한 마을배움터 운영) ▲북구 꿈나무사회복지관(마을주민이 주도하는 온마을 공동육아 프로그램 운영) ▲광산구 첨단살롱여문손(마을 주민이 쉽게 성평등 교육 접하도록 성평등 주제에 맞는 공예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8곳이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 1월 여성친화마을 조성사업

에 참여할 마을공동체를 공개 모집, 성평등위원회 심의와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8개 마을을 최종 확정했다. 선정된 마을에는 사업비 7500만원 등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광주여성가족재단과 함께 여성친화마을 8곳을 대상으로 마을활동 경험에 있는 전담 활동가를 배치, 맞춤형 상담과 역량강화 교육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성평등한 마을이 모여 성평등한 도시를 만들자'는 취지로 2012년 여성친화마을을 조성해 현재 71개 마을을 발굴하고, 성평등 문화 확산

과 여성이 지역사회의 주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21년 동구·광산구를 시작으로 2022년 서구·북구에 이어 2023년 남구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면서 5개 자치구가 모두 지정되는 성과도 냈다.

김선자 광주시 여성가족과장은 "여성이 평등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올해 여성친화마을 조성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다"며 "광주시는 앞으로 시민 일상에 양성평등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시립도서관은 '봄'

강연·체험·전시 등 다채

광주시립도서관(무등·사직·산수)은 "제60회 도서관주간(4월 12-18일)과 책의 날(4월 23일)을 맞아 '도서관, 당신의 내일을 소장 중입니다'를 주제로 다양한 독서문화 행사를 진행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도서관 주간은 한국도서관협회가 1964년에 정한 주간으로 도서관의 가치와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도입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4월 12일을 '도서관의 날'로 제정했다.

무등도서관은 1일부터 30일까지 ▲'할머니 어디가요 시리즈' 조혜란 작가와의 만남 ▲책과 함께하는 미니어처 만들기 ▲우드카빙 독서링 만들기 ▲어반스케치 작품전시 '책 읽는 마을' 등 7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사직도서관은 1일부터 23일까지 ▲꿈과 기록을 담은 책 만들기 ▲시와 그림을 담은 다이얼리 만들기 ▲필사적 읽기 등 7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산수도서관도 1일부터 23일까지 ▲힐링공예·산나무 차 트레이 ▲예쁜 글씨와 무드등 만들기 ▲그림책 원화 전시 등 5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강연 및 체험 행사 접수는 광주시립도서관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시민의견 듣는다

초·중·고생 50명 등 70여명...4일까지 모집

이번 토론회 참가자는 4일까지 선착순 모집하며, 대상 인원은 초·중·고등학교 및 학교밖 아동 50명, 학부모 10명, 아동관계자 10명 등 총 70여명이다. 신청은 광주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관련 신청

서를 내려받아 작성후 메일 또는 방문(시 아동청소년과) 제출하면 된다.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은 광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방향성을 설정하고,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수립 자료 등으로 활용

할 계획이다.

오영걸 광주시 여성가족과장은 "아동·청소년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시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유니세프한국위원회로부터 2019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으며, 오는 12월 재인증을 신청할 예정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는 "오는 1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아동·청소년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시민 의견수렴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선 지속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아동친화도시 표준조사 결과, 아동정책 등을 논의한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18세 미만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할 수 있는 지역사회로, 아동친화도시 인증은 유니세프가 세계 200여 개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봄나물 씻어 드세요

광주보건환경연구원 조사 부추·돌나물 등 7건 '부적합'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은 "봄나물은 반드시 흐르는 물에 충분히 세척한 뒤 섭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1월부터 3월 중순까지 실시한 '봄철 다소비 농산물(봄나물)'에 대한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에서 부추·돌나물 등 7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됐기 때문이다.

검사는 서부·각화농(수) 산물도매시장, 대형마트, 재래시장, 로컬푸드 직매장 등에서 미나리, 달래, 씩, 취나물 등 봄나물류 13개 품목, 213건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340개 항목을 분석했다.

검사 결과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은 7건(3.3%)으로 부추 3건, 돌나물, 머위, 봄동, 세발나물 각 1건씩이었다. 농약성분은 포레이트, 리뉴론, 프로사이미돈 등 5종으로 살충제와 살균제 성분이 기준초과로 나타났다.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은 기준초과 농산물을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적합 긴급통보시스템에 신속히 등록하고 압류, 폐기하는 방식으로 시장 유통을 차단했다. 또 생산·판매자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해 도매시장 출하제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정현철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농산물의 미량 잔류농약은 세척과 가열 조리 과정에서 대부분 분해되므로 섭취하기 전에 물에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충분히 세척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정민곤(오른쪽 네번째) 광주도시공사 사장이 지난 29일 청렴시민감사관들과 청렴정책 실천을 다짐하며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광주도시공사, 올해 첫 청렴시민감사관 회의

시민 경영참여 확대로 부패취약분야 개선...청렴도 향상 기대

광주도시공사는 "지난 29일 공사 사옥 중회의실에서 2024년도 제1회 청렴시민감사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렴시민감사관은 이날 회의에서 공사의 2023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와 2024년도 반부패 및 청렴정책 추진 계획에 대해 청취하고, 공사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는 공사의 위법하고 부당한 업무처리와 불합리한 제도, 관행 등을 발굴하고 개

선하기 위해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제도다. 공사는 2016년부터 외부 전문가를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해 운영해 오고 있다.

정민곤 광주도시공사 사장은 "풍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청렴시민감사관과의 정기적인 회의와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부패취약분야를 발굴 개선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 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최중증 장애인 자동소변수집장치 참여자 모집

광주시, 오늘부터 200명...구입비 10% 본인 부담

광주시는 "1일부터 거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위해 자동소변수집장치 지원사업 참여자 2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민참여예산을 통해 선정된 이번 사업은 배변·배뇨 조절이 어려운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지원 대상은 광주시내 거주자를 두고 있는 최중증장애인이다.

배변·배뇨 조절능력 저하로 상시 대소변 흡수용품 사용해야 한다는 문구가 명시된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하며, 뇌병변장애인 흡수용품 지원사업과 보건복지부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을 지원하는 장애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 대상자는 수행기관인 광주시 남구장애인

복지관의 선정 회의를 통해 결정하며, 지원금액은 대소변흡수용품 자동소변수집장치 구입비 90%다. 나머지 10%는 본인부담이다.

사업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수행기관인 광주시 남구장애인복지관으로 방문하면 된다. 방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전화(062-611-1910) 신청 후 원본 서류는 이메일, 우편, 팩스로 발송하면 된다.

남미선 광주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자동소변수집장치 지원 사업은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집중단속

26일까지 판매업체 20곳 대상

광주시는 오는 26일까지 식육 및 축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민이 많이 찾는 지역 축산물 판매업체 20곳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외국산품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에서 원산지를 판별할 수 있는 돼지고기 원산지 검정키트, 한우·비한우 확인 정밀검사 의뢰 등 과학적 분석방법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원산지 거짓표시와 미표시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의 형사 처벌을 하거나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